



2022년 / 1월 4주차

연구원 소식

김건우 교수와 함께 만나는 孔子 이야기 네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1월 20일 목요일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에서 열린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목요강좌> 네 번째 이야기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 공자의 제자들”을 김건우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나눴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강의에 함께 한 회원들의 열기는 뜨겁기 그지없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전제로 추가 참석을 협의하실 수 있으니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연구원 사무국(063-286-3005)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목요 강좌

공자이야기

김건우(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상임이사)

- 1강 야합_공자의 탄생과 가족
- 2강 난신적자_공자와 춘추시대
- 3강 꿈속 주공_공자의 이상
- 4강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_공자의 제자들
- 5강 집 잃은 개_공자를 바라보는 시각
- 6강 태산이 무너지고_공자의 죽음 그 너머

모집대상
연구원 회원(15명 이내, 수강료 무료)

신청방법
연구원 사무국으로 신청

개강일시
2021년 12월 30일 오후6시 30분

문의사항
연구원 사무국 063-286-3005

■ 역사 속의 오늘

호남선 완행 열차의 비극 - 1960년 1월 26일



1956년 발매된 노래 "비 내리는 호남선"는 그 해 5월 5일 호남선 열차를 타고 익산 함열역 인근을 지나던 대통령 후보 신익희의 죽음으로 세상에 유명해지게 되었고 그의 죽음 4년 뒤 부정선거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말로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다시금 민인들의 가슴을 울리는 노래로 세상에 올려퍼졌다.

2022년 설날은 앞으로 여드레 뒤다. 1960년, 그 해 설날은 양력으로 1월 28일이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민족의 대이동'은 매한가지라서 그 해에도 서울역은 설을 쇠러 고향으로 가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요즘과 차이가 있다면 지금이야 설 한달 전에 인터넷이나 현장을 통해 표를 예매하고 차분하게 당일 역에 가면 되지만 1960년 당시에는 서울역 매표소에서 줄지어 선 채 표를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설 이틀 전이었던 1960년 1월 26일 밤 서울에서 10시 50분에 떠나는 호남선 열차의 표 판매량은 평소의 세 배였다. 철도청은 설날이라는 대목을 맞아해 입석표도 모두 동남만큼 표를 팔았다. 당연히 추가된 승객들을 태우려면 기차를 더 연결해야 했다. 객차들을 다급하게 연결해 완성한 시간은 불과 출발 5분 전이었다.

결국 출발 5분 전에 이르러서야 개찰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4천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역무원의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개찰 신호와 함께 개찰구를 향해 내달렸다. 시간은 5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좌석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맹렬하게 달렸다. 좌석이 있다 한들 뒤늦게 탔다가는 좌석 근처도 가지 못하고 몇 시간을 두 발로 버티기는 고문을 당해야 할 판이었다. 모두가 럭비 선수가 됐고 육상 선수가 됐다. 노약자들은 버둥거리며 뛰었지만 젊은이들의 힘을 당할 재간이 없었다. 그때 계단 한쪽에서 한 명이 크게 비틀거리더니 허우적거리며 넘어졌다. 발을 헛디딘 것이다. 한겨울이었고 계단 곳곳엔 얼음도 맺혀 있었기에 넘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비극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날 사고로 31명이 압사당하고 40여 명이 중상을 입었다. 희생자 대부분은 여성과 아동이었다.

“다시 못올 그 날짜를 믿어야 옳으나 속는 줄을 알면서도 속아야 옳으니 죄도 많은 청춘인가 비 나리는 호남선에 떠나가는 열차마다 원수와 같더란다”

비내리는 호남선 가사 中